

職田復舊論은 논리구성만큼은 정연하고 정당하였다. 이 방안은 顯宗初와 肅宗中半에 각각 두차례에 걸쳐 논의되었다. 그러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우선 職田은 土地分給制下의 收租地로서 그 최종적 형태였고, 宮屯은 私的 所有로서의 屯田인 것으로 兩土地의 성질이 달랐다. 또한 職田復舊論 자체가 토지의 私的 所有와는 계통이 다른 王土論·王民論에 입각하여 宮屯의 확대를 저지하고 折受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掇弊論으로서는 現實性이 결여되어 있었다. 王土思想은 그 실체가 土地分給制와 田主佃客制였는데 이 시기엔 이것이 이미 소멸되어 觀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論은 折受免稅制의 폐지를 요구하는 輿論을 집약한 점, 顯宗初 宮屯免稅의 定限制와 肅宗中半給價買土制의 시행에서 大君·君의 職田結數가 각각 책정기준으로 참고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給價買土制 실시이후, 職田復舊論은 다시는 제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續大典 제정단계에 가서는 法制上의 근거마저 상실하였다.

宮屯·營衙門屯의 弊端은 收租權이나 王土思想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별개의 계통에서 처리될 문제였다. 土地의 私的 所有를 바탕으로 하고 屯土로서 성립하고 있는 庄土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이 문제는 私的 所有의 토지를 재배분하고 그 소유관계를 개편하자는 土地改革論으로 넘겨져 이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井田論·限田論 및 이후에 등장하는 諸農業改革論이 안고 있던 課題의 하나가 이 문제였다. 이런 속에서 王土思想도 이를 改革論을 통해 새롭게 강조되고 새롭게 授用되고 있었다. 그것은 地主的 土地所有의 諸矛盾을 타파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論據로서였다.

한국 빗살무늬토기와 일본 소바다토기 문화와의 관련성

임 호 재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한·일문화교류사관계는 양국 모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발굴성과에 의하여 많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암사동·미사리·오산리 등에서 중요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는가 하

면, 일본에 있어서는 소바다패총의 대규모 발굴을 계기로 양국 교류사 관계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위 유적출토 토기를 구주(九州) 구마모또 소바다(曾烟)유적의 지명을 따서 소바다식 토기(曾烟式土器)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 토기의 基本器形은 丸底深鉢形으로, 土器外面全面에 가는 施文具를 사용하여 刺突文·鋸齒文·平行線文·菱形文 등을 연속적으로 조합하여 기하학적 문양을 施文한 토기를 지칭한다. 이런 형식은 일본내에서도 九州지역에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약 150개소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토기는 일본 신석기시대의 전형적 토기인 조몬토기 전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 소바다 관계 유적, 예를 들면 나바다게, 이끼리끼, 소바다패총등을 대규모로 발굴하여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 출토되었다.

이런 발굴에서 출토된 토기를 분석하여 볼 때 현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토기의 모양에 있어 밑바닥이 둥근 포탄형이고 둘째, 무늬장식에 있어서 새끼무늬(繩文)가 아닌 그어서(沈線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시문하고 있으며 셋째, 토기표면을 위로부터 3등분하여 각각 다른 무늬요소를 그려넣어 장식하고 있으며 토기를 빚어 만드는 점토에 滑石을 섞어 넣고 있으며, 토기 양측에 고리형 손잡이가 달려있는 점 등이 뚜렷한 특징들이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일본 신석기시대의 전통적인 조몬토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異質的)인 것으로 오히려 한국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와 공통되는 특징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굴된 약 150개의 이런 계통의 유적은 한결같이 한반도와 거리상 가장 가까운 큐우슈우 지역에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연대상(年代上)에 있어서도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가 B.C4000년 전후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 B.C3000~3500년 전후로 나타나 근사성(近似性)이 있으나 한국의 것이 앞서고 있다.

이와같이 소바다토기의 특징들이 일본 신석기시대의 조몬토기 전통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며, 오히려 인접한 한반도의 것과 공통성이 두드러지고, 또 연대적으로도 한국측이 약 500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소바다토기의 원류(源流)를 한반도에서 크게 번영하였던 빗살무늬토기문화에서 구한다는 것은 무리없는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소바다토기문화의 기원과 성립배경을 놓고 이론(異論)을 제시한 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중에는 소바다토기에도 나름대로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예